

## II. IMF 경제 정보

### 1. 금주의 정책 이슈

#### ○ 예상되는 주요 현안

- IMF와 고금리 인하 협상 착수
  - 환율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한국은행 RP 입찰 금리를 2~3% 포인트 낮추는 것을 비롯하여, 3월 16일부터 IMF와 금리 인하 협상에 착수함
-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방안 마련
  -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폐지, 적대적 M&A의 3월 중 조기 허용, 외환 관리법 개편 등을 위해 '법령개선작업단'이 3월 20일 이전에 발족할 예정임
-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
  - 기업에 대한 중복 및 과다 채무보증을 자진 해지하지 않거나, 외환 수수료 담합 인상을 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

#### ○ 표류하는 실업 대책

- 실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실업 대책은 지연되고 있음
  - 당초 정부는 올해 100~11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1월 현재 93만 명을 넘어서서 연말에는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 -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업지원자금은 5조(고용보험기금 2조, 비실명장기채 2조, 세계은행 지원금 1조) 원이지만 노동부는 총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
  - 게다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필요 재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3월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자금 규모 및 조성 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번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함
  - 이처럼 실업 대책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수 실업자가 실업수당 및 재취업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#### ○ 인도네시아 위기 상존

- 수하르토 대통령의 반개혁적인 정책 고수로 인해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
  - 7선에 성공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초대 각료로 친인척을 임명하는 등 IMF와 서방의 개혁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
  - 이에 따라 IMF는 2차 지원금 30억 달러 지불을 유보하고, 계속해서 경제 개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함
-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IMF측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으로 예상됨
  -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정환율제는 인정하는 대신, 산업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예상됨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